

“주민의 행복 · 삶의 질 향상 가치 추구”



주민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홀몸 어르신 생신 챙겨드리기사업 추진

김재일 부안읍장은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의 전부를 공직자란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몸담아 왔던 공직을 오는 31일 마감하면서 “식별의 아쉬움을 가슴깊이 새기며, 앞으로 부안군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지난 세월 만감이 교차한다고 회고했다.

지난 81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 김읍장은 하서·백산·위도 면과 수도사업장을 거쳐 지난 2월 부안읍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화합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은 물론 직원 상호간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솔선수범하여 가족 같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더욱이 김읍장은 지역사회를 발전하려고 4중(多만나고, 다나누고, 다통하고, 다행복하게)은동 전개를 통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소통·공감·동행 행정실현으로 행복한 부안 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

김읍장은 특히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홀몸 어르신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을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이동상담실 운영,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민관 협력사업 시행 등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민·관이 함께 해결해갈 수 있는 마 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또 중식시간 민원처리, 거동불능자 출장 민원처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 민원서비스향상에 노력, 주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6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조기근무제, 민원택배제 운영, 지방세 납기일 연장근무실시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읍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으로 청결 부안 이미지 각인에 솔선수범해 왔으며, 소득창출의 원천인 농업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을 공동체를 구성, 농촌 체험 관광코스 개발 및 농가와 지역 업체 간 연계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를 하고자 농가들과 현장포럼을 실시하는 등 6차 산업의 구심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지난 2013년 고향인 행안면장 재직시 면민들의 시급한 불편사업을 선정, 면민이 행복한 행 안면

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 안길 확장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도로 양벽 도색공사 등 새마을운동 21개사업 추진과 고질 체납자를 집집이 방문하여 지방세에 대한 자상한 설명으로 고질 체납자를 설득하여 체납세 없는 면으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2012년 위도면 장시 위도면민 화합과 소통을 하려고 위도면 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위도면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위도파벳놀이, 서해웨이하 위험제 등 각종 큰 행사를 직접 진두 지휘하여 완벽한 행사를 하는 등 위도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가 한편 위도 어민의 소득활성화를 위하여 고금어종 475천 마리 방류, 161톤 바지락 종패 지원, 치도 앞바다 개수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역발전 공헌에 기여하였다.

임과장은 1981년 8월부터 현재까지 35개 성상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공무에 충실하면서 복민관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맡은 업무에 대해 성실히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직장에서나 일상에서 항상 준비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모범을 보여 내부부장관상을 비롯하여 도지사·전북경찰청장· 부안군 모범 공무원상을 받았다.

/부안=이옥수 기자

